

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오_선
파견국가	Canada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파견기간	2017.02.27~2016.06.18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랑가라 컬리지는 밴쿠버 중심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학교의 규모는 많이 크지 않지만 학생들을 위한 모든 편의시설(도서관, 카페테리아, 서점, 카페 등)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기숙사 제외) 생활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학교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도보 5분정도 거리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교통도 매우 편리합니다.</p>
수업	<p><i>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i></p> <p>학교가는 첫날에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반이 나뉘어집니다. 테스트는 reading, writing, speaking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험 난이도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학기동안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지는데 한 세션당 7주동안 수업이 진행됩니다. 첫 세션이 끝난 후에는 Final test를 통해서 다음 세션의 반이 결정됩니다. 총 레벨이 8까지 있는데 저는 레벨4와 레벨5를 들었습니다.</p> <p>한 반에는 약 17명정도의 학생들이 있으며 대부분 중국, 일본, 베트남 학생들이며 러시아, 멕시코 학생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현지 학생들과 수업을 듣지 못하여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의 영어 수준이 낮지 않기 때문에 다른나라 학생들로부터도 영어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분반 시 같은 나라 학생들끼리는 붙여 놓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수업 중에도 영어만 사용하는 것을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하기에 적절한 환경이었습니다. 한 반에는 2명의 선생님이 있으며 격일로 한번씩 수업에 들어오십니다. 선생님들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수준이 높으시며 국제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수업을 가르치십니다.</p> <p>수업은 오전 수업과 오후 수업이 있는데 자신의 레벨과 반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집니다. 오전 수업은 8시30분부터 12시20분까지 진행되며, 오후 수업은 12시30분부터 16시30분까지 진행됩니다. 저는 2세션 모두 오전 수업만 들었습니다.</p> <p>수업 내용은 reading, writing, listening, speaking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p>

	<p>매 주마다 다른 주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첫번째 주에는 Botany라는 주제의 수업자료들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업자료들은 매 세션마다 새롭게 나눠주며 자료들의 형식은 지문과 문제형식으로 되어있으며 수업시간에 진행되기도 하며 과제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수업자료들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대충 공부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은 매주마다 reading, listening, writing 시험을 보며 speaking시험은 중간, 기말로 2번 그룹 발표로 대체됩니다. 지문 뿐 아니라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파트너를 바꿔가며 매번 자리를 옮겨가며 수업을 하는 등 수업이 매우 활동적이므로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으며 지루하지 않습니다.</p> <p>과제는 레벨4였을 때는 과제의 양이 그닥 많지 않아서 수월하게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과제는 매일매일 주어지는데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서 2시간에서 3시간정도면 다 끝낼 수 있는 정도 입니다. 하지만 레벨 5였을 때는 과제의 양이 상당히 많아서 처음에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1시부터 과제를 시작하면 주로 4시30분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은 후 1~2시간정도 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과제는 에세이 쓰기였습니다. 한국의 수업방식과는 다르게 많은 생각과 의견을 요구하는 스타일이므로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p>
<p>프로그램 운영</p>	<p><i>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현황</i> <i>예) 오리엔테이션, 교환학생 참여 프로그램, 담당부서, 담당자명, 상담 프로그램 등</i></p> <p>건물 1층에 국제 학생들을 위한 오피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찾아가시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친절하고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잘 설 명해주시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p> <p>학교 수업 외에 주중과 주말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예를 들면 워크샵 등이 진행되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리딩 스킬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이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설명회는 당연히 영어로 진행되지만 크게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야외 활동들이 진행되는데 저는 i-dinner과 indoor rock-climbing에 참여하였습니다. 참여비는 대부분 20달러 이하이며 학교에서 만나서 단체로 이동하여 활동을 즐겼습니다. I-dinner는 외국인 학생들과 다운타운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가서 저녁을 먹었으며, rock-climbing은 학교 근처에 위치한 실내 암벽등반장에 가서 2시간정도 강사에게 배우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i-café 라는 프로그램은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인데 모든 프로그램들에 참여를 한다면 영어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고 즐거운 학교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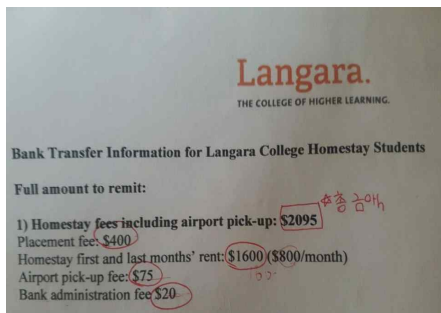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i>현지 기후 및 유의점</i></p> <p>3월, 4월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추웠습니다. 눈이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거의 일주일 내내 비가 왔는데 비의 양이 많지는 않고 조금 내리다가 그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습하지 않기 때문에 날씨가 많이 추워서 니트, 후드 집업, 바람막이, 코트 등을 입고 다녔습니다. 5월부터는 비가 멈추고 날씨가 좋아졌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옷차림으로 다녔지만, 기온차가 매우 심 가디건 같은 아우터는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6월에는 여름이 점점 시작되므로 주로 반팔을 입고 다녔지만 비가오는 추운 날에는 후드집업을 입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여름 날씨와는 다르게 습하지 않고 건조하므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춥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4,5,6월에 입던 옷보다는 조금 따뜻하게 챙겨가는데 좋습니다.</p>
안전	<p><i>현지 안전 상황</i></p> <p>밴쿠버는 매우 안전한 지역입니다. 5,6월에는 해가 밤 10시정도에 지므로 늦은 저녁에도 거리가 어둡지 않습니다. 다운타운지역에는 홈리스들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점들이 모두 6,7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항상 홈스테이 가족들의 핸드폰 번호나 집 주소,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적어서 지갑에 들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p>
숙소	<p><i>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i></p> <p><i>기숙사 이름,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i></p> <p>랑가라 컬리지는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홈스테이를 이용합니다. 홈스테이는 학교에서 임의로 배정해주는데 대부분의 홈스테이 가족들은 캐나다인들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온 가족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오랫동안 거주하셨던 분들이므로 영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70대 할머니 할아버지의 집에서 머물렀는데 학교에서 도보 25분정도 거리입니다. 옆 방에는 다른 홈스테이 학생이 있었지만 방은 따로 쓰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홈스테이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어서 국제 학생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으며 너무나도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정말로 고마우신 분들이었습니다. 규칙은 세탁기는 1주일에 한 번 사용하도록 하셨으며 샤워는 밤 9시이전에 끝내기, 통금 시간은 정해지지 않는 않지만 11시이전에 들어오는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2층집이지만 홈스테이 가족들과 같은 층을 사용하였지만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방에는 기본적으로 책상, 옷장, 침대가 있기 때문에 따로 구매하거나 가져갈 것은 없었습니다.</p>
식사	<p><i>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o)</i></p> <p><i>외부식당 () 직접 요리 () 기타 ()</i></p>

	<p><u>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u></p> <p>아침마다 홈스테이 가족들께서 밀크티, 바나나, 와플, 식빵 또는 우유와 시리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점심은 홈스테이 가족들마다 다른데, 제 홈스테이 가족들은 직접 요리해서 도시락에 챙겨 주셨습니다. 점심은 주로 전날 먹었던 저녁이나 샌드위치와 과일 등 다양하게 챙겨 주셨습니다. 디저트로 음료수나 쿠키 같은 과자도 챙겨 주셨습니다. 저녁은 직접 쌀로 밥을 지어 주셨는데 닭고기 요리, 카레, 볶음밥, 돼지고기 요리 등으로 준비해 주셨으며 피자를 만들어 주시거나 파스타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입맛에 너무 잘 맞아서 주로 집에서 밥을 먹었으며 밥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p>
교통	<p><u>통학방법, 시내교통, 주요도시 이동 관련</u></p> <p>밴쿠버의 교통수단에는 스카이 트레인(우리나라의 지하철), 버스가 있습니다. Monthly pass 교통카드를 구매하여 이용하였습니다. 한달에 91달러이며 스카이 트레인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달마다 충전하여 이용하였습니다. 학교에 가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버스를 2번타고 다녔습니다. 밴쿠버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이던지 스카이 트레인이나 버스를 타면 쉽게 이동 가능합니다. 스카이 트레인의 배차간격도 2분마다 한 대 켜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밴쿠버에 택시가 있기는 하지만 한번도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80만원 후반 대	대한항공 밴쿠버-인천 직항
Fees		<p>출국 전 지출 해야하는 총 금액 (\$2095 = 1,903,966원)</p> <p>Placement fee + 2달치 홈스테이 비용 (출국 전 2달의 홈스테이 비용을 미리 내고 가야 함) + 공항픽업비(선택임) + bank administration fee</p>
보험료	약 8만원	한화생명

숙소	매 달 \$800	가기 전 2달 치 비용(3월, 6월비용)을 내고갔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4월과 5월 요금만 지불하면 됨.
식비		
교통비	매 달 \$91	교통카드 Monthly pass 구매
책값	-	
기타1	\$8	책값은 없었지만 과제 프린트 등으로 인쇄비용이 들었음.
기타2	400~450만원	4개월 간 현지에서 사용한 용돈 (식비, 쇼핑, 여행 등)
기타3	매 달 약 4만원 (데이터 2GB, 문자 전화 무제한)	핸드폰 요금 (한국에서 캐나다 유심을 구매하여 가져갔음)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분량 자유)*

- 1) 개인 노트북을 가져오면 매우 편리합니다. 리스닝 과제나 동영상 시청 등의 과제가 주어지는데 핸드폰으로는 재생이 안될 경우가 있으며 피피티 만들기, 에세기 쓰기 등 개인 과제를 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 2) 계절이 아무리 봄 이라고는 하지만 한국과는 다르게 춥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챙겨오는 것이 좋으며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우산은 필수입니다. (현지에서 사는 우산은 가격도 비싸고 질이 매우 좋지 않음)
- 3) 현지에서 캐나다 유심을 구매하여도 좋지만 한국에서 유심을 구매해갔습니다. 상담 시 말이 더 잘 통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현지 유심보다 한국에서 구매해가는 유심이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 4) 홈스테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줄 선물을 미리 준비해가면 좋습니다. 캐나다는 차문화가 유명하기 때문에 저는 홈스테이 가족들을 위해서 한국 전통차를 준비해갔으며 친구들에게 줄 한국 자석을 구매해갔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여서 조금 놀랐지만 뿌듯했습니다.
- 5) 캐나다는 110V를 이용하므로 변압기를 챙겨와야 합니다.
- 6) 학용품은 가능하다면 넉넉히 가져오는게 좋습니다. (특히 현지의 샤프심이 매우 약해서 튼튼한 샤프심을 구매하느라 고생함)
- 7) 교환학생 프로그램자체가 현지 학생들과 수업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 학생들(대부분 중국, 일본, 베트남 등)과 수업하는 것이므로 미리 알고 오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국제 학생들과 수업을 한다고 해서 수업의 질이 낮거나 영어를 배울 수 없는 환경은 아닙니다.
- 8) 공부가 목적이긴 하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등 여행할 시간이 많으므로 미리 밴쿠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통해 많이 알고온다면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 여행지, 맛집, 근교여행 등)

9) 오기 전 가능하다면 리스닝과 스피킹 공부를 하고 오는 것이 매우 도움됩니다.

*학교 생활용품 (현지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으나 한국보다 질이 좋지않고 비쌌)

: 수업자료를 콧을 3공바인더 1.5인치, 3공바인더 노트, 5가지색 형광펜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분량 자유)

저는 2년 전 랑가라 컬리지 3주어학연수를 다녀온 후 그때의 경험이 동기부여가 되어 교환학생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밴쿠버는 정말 멋진 도시이고 랑가라 컬리지는 국제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학교입니다. 4학년 1학기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어 처음에는 조금 고민을 하였지만, 다녀온 지금은 매우 만족하며 4년의 대학생활 중에서 가장 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제 자신을 가장 많이 발전시킨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가 영어공부하기에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저는 4개월 동안 영어 실력이 현저하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무리 짧은 시간이어도 각자 공부하기 나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녀 온 후 영어 실력이 늘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졸업 후 제 진로에 대해 더 자신감도 생겼고 영어 공부에 더 많은 흥미가 생겨 더 열심히 공부하는 중입니다. 평일에는 복습과 과제를 하거나 운동을 하며 거의 하루를 보냈지만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세션이 끝난 후 10일)에는 밴쿠버뿐만 아니라 로키산맥, 빅토리아 섬, 시애틀 등 여행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교환학생의 목적은 영어공부였지만,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홈스테이 가족들과 지내면서 캐나다의 문화도 알게 되고 다양한 체험과 여행을 다니면서 안목을 넓힐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도 만났으며 지금은 둘도 없는 가장한 소중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밴쿠버 특성상 다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서양 문화뿐 아니라 다른 각 국의 행사에 참여하여 문화체험도 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타지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두려움이 커서 걱정도 많이 하였지만 좋은 홈스테이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덕분에 한국에서만만큼 편안하고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망설이지 않고 다시한번 더 가고 싶습니다. 교환학생은 대학생의 신분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경험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누군가가 망설이고 있다면 적극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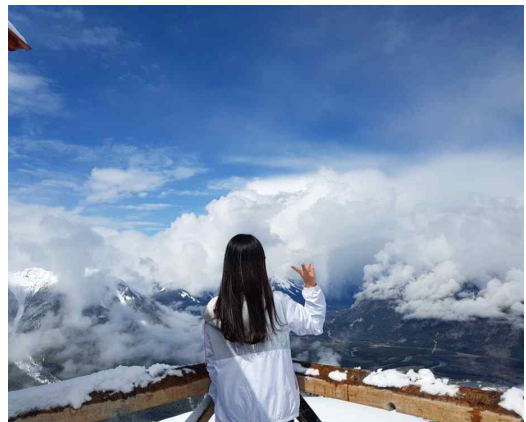
랑가라 컬리지 캠퍼스



i-dinner 참석 (학교 프로그램)



BC 주 의사당



로키산맥 여행 (세션 방학 중)



Indoor rock-climbing (학교 프로그램)



밴쿠버 벚꽃축제